



캄보디아성결신학대학

Cambodia Evangelical Holiness Theological College



할렐루야! 캄보디아에서 문안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후원교회와 동역자님들을 축복하며 늘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음으로는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고 싶으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들이 나오지만 실질적인 뉴스를 통해서는 심각한 사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주 전부터 시작된 태풍 랑카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려 홍수가 일어나 22만명이 집을 잃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실종된 상황입니다. 신학교 앞 도로 까지도 침수가 되어 진입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이러한 가운데 신학교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지만 계획대로 23일(금)에 이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에 홍수 피해가 심각하고 신학교 주변도 떠다니는 쓰레기와 오물, 전염병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기도 부탁 드립니다.

캄보디아성결신학대학

이곳의 상황이 어렵지만 학교를 닫지 않고 열심히 강의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 교수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 부탁 드립니다. 물이 허벅지까지 차는 도로를 오토바이를 끌고 들어와 수업을 진행해주시는 이 분들을 위해, 저도 직접 툽툽이를 타고 나가 이들을 학교로 실어와 강의가 멈추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월16일 종강 할 때까지 은혜 가운데 학생들의 배움과 신앙 생활이 유지되도록 할 것입니다. 12월25일 성탄절에는 최봉탁 선교사님이 지도하시는 "성탄찬양축제"를 학생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 이곳의 가장 큰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생활



아내 조은혜 선교사가 코로나의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7개월 간의 훈련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동역자님들과 후원교회에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전주 인후동교회에서 열린 안수식에 우리 교단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저와 함께 영상으로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며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이 이번 훈련을 마침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더욱 단련된 모습으로 겸손히 섬기는 선교사로 바르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예진이가 캄보디아에서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던 발목이 계속 아파서 인천 세림병원에서 MRI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발목 인대가 거의 파열되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리치료를 한 달 간 진행한 후 다시 의사선생님과 상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도부탁드립니다.



기도해주세요

- 온 세계를 어렵게 만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속히 종식되기를
-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2020년 학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 자연 재해와 전염병의 어려움 가운데 사역자들과 캄보디아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 저와 아내, 자녀들의 건강과 온전한 가정을 위해
- 신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2020년 10월24일 김응수 조은혜 예진 용진 용빈 선교사 드림